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43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① 무엇이 일본 불매운동을 이끄는가?
②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2019. 09. 09.

① 담당자 김보미 차장

전화 | 02-3014-1056
e-mail | kimbm@hrc.co.kr

② 담당자 이동한 과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이소현 인턴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정한울 전문위원

전화 | 02-3014-1057
e-mail | hw.jeong@hrc.co.kr

조사실무

오승호 부장

전화 | 02-3014-0167
e-mail | shoh@hrc.co.kr

이동한 과장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구정태 연구원

전화 | 02-3014-1040
e-mail | jtkoo@hrc.co.kr

2019년 8월 주요 조사결과



기획조사 : 무엇이 일본 불매운동을 이끄는가?

- 일본 불매운동이 어느 덧 두 달째에 접어들었다. “장기간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유니클로 임원의 예측과 달리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분위기는 여전히 뜨겁다. 국내 일본제품 매출이 급감했다는 보도나 관광객 감소로 일본 소도시 경제가 어려움에 빠졌다는 보도 등은 일본 불매운동의 효능감을 높여주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분위기도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국뽕(국가에 대한 자긍심에 과도하게 도취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은어)’으로 조롱하는 목소리도 있다.
- 그렇다면 현재 일본 불매운동을 이끄는 힘은 강력한 국가자부심인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사회의 여론은 어떠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연구팀은 지난 8월 만 19세 이상 전국 1,000명 대상의 〈여론 속의 여론〉 웹조사를 통해 일본 불매운동에 대한 인식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 우리 국민의 84%는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89%는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초창기 소비재와 일본 여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문화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문화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계층은 40대와 50대로 조사되었다. 국가자부심이 높을수록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비율도 높는데, 40·50은 바로 이 국가자부심이 가장 높은 세대이다.
- 반면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가자부심이 낮다. 20·30은 다른 세대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다는 인식이 강한 세대로, ‘품질이든 문화 수준이든 우리가 더 나은데 왜?’라는 자신감이 일본 불매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국으로 비난하고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선동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국민의 70%는 불매운동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2019년 8월 주요 조사결과

2

기획조사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는 성폭력사범의 성폭력사범의 높은 재범률,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 및 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등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2008년 9월 도입되었다. 여러 번의 법 개정을 거친 현재는, 성폭력 외에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을 저지른 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고, 미성년자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0년(두 건 이상의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4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할 수 있다.
- 전자발찌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국민은 전자발찌가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아, 국가, 정부기관의 특정 범죄자 관리에 전자발찌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 이상이었다.
- 전자발찌 착용자의 준수수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과 전자발찌 손상 시 처벌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하였다.
- 현재 논의 중인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개정안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금지, 전자발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 부착, 일정기준 초과 시 보호관찰소에 정보 전달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개정안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 특정범죄 외에 주요 강력범죄, 그리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도박, 마약, 음주운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묻은 결과, 특정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주요 강력범죄들도 조건부 찬성을 포함하면,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하였다. 불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 또는 죄질에 따라 착용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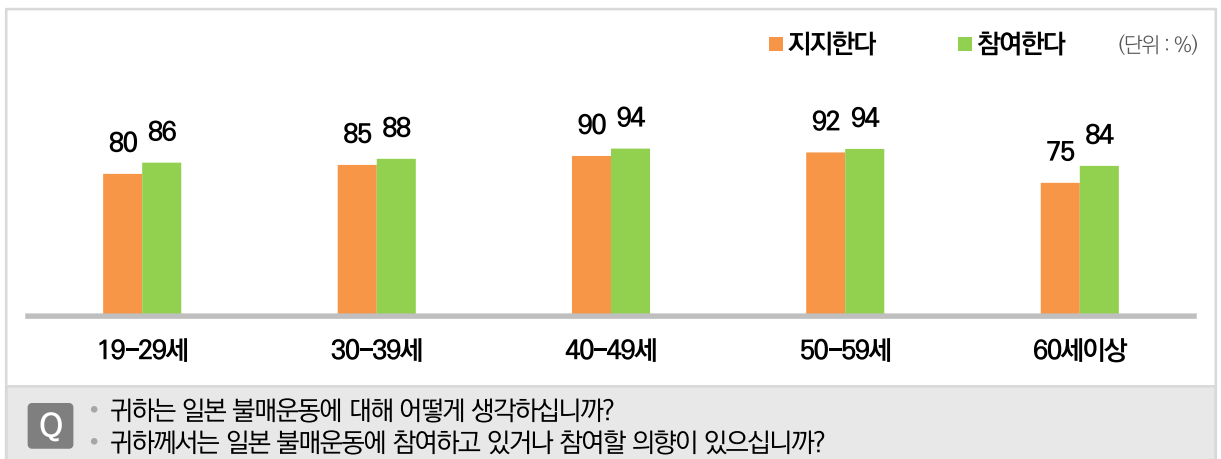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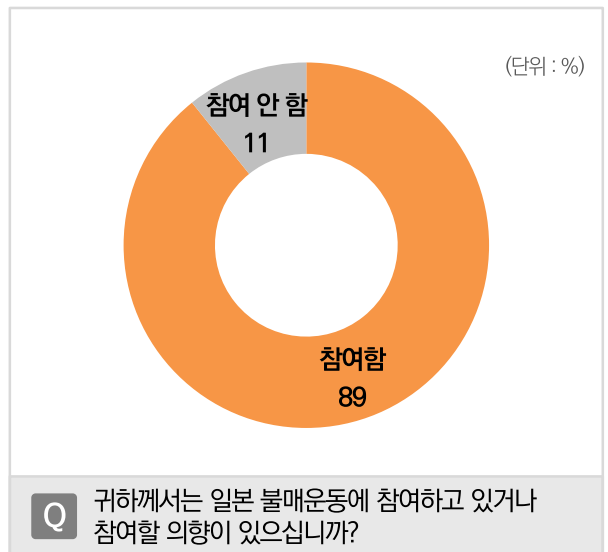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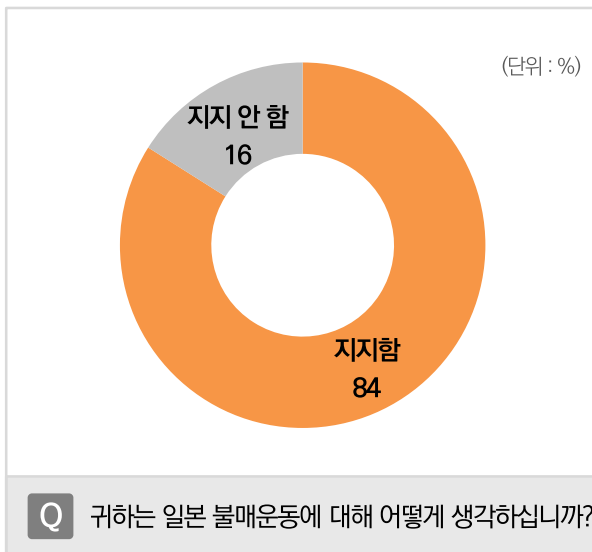
무엇이 일본 불매운동을 이끄는가?

1 일본불매운동 지지

국민 10명 중 8명 일본 불매운동지지, 문화로까지 확대되는 것에는 다소 유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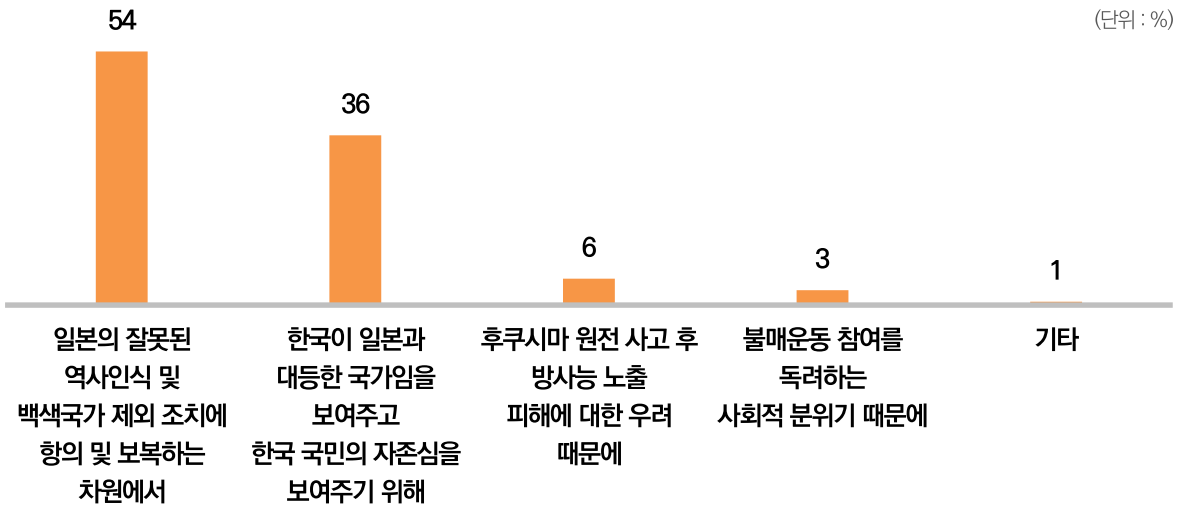
우리 국민의 84%는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며, 89%는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잘못된 역사인식 및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항의 및 보복하는 차원에서(54%)', '한국이 일본과 대등한 국가임을 보여주고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보여주기 위해(36%)' 참여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사능 누출 피해에 대한 우려(6%)'도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었다.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3%에 불과했다.

초창기 소비재와 일본 여행을 중심으로 시작된 불매운동은 문화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재, 여행에 비해 문화 불매운동은 상대적으로 호응도가 낮은 편이다. 실제로 여러 항목별로 불매운동이 바람직하지 조사한 결과 자동차,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공산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80%를 넘는다. 반면 영화 및 애니메이션(70%), 음악(64%), 책(63%) 등 문화 영역에서 불매운동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본 불매운동을 문화 영역까지 확장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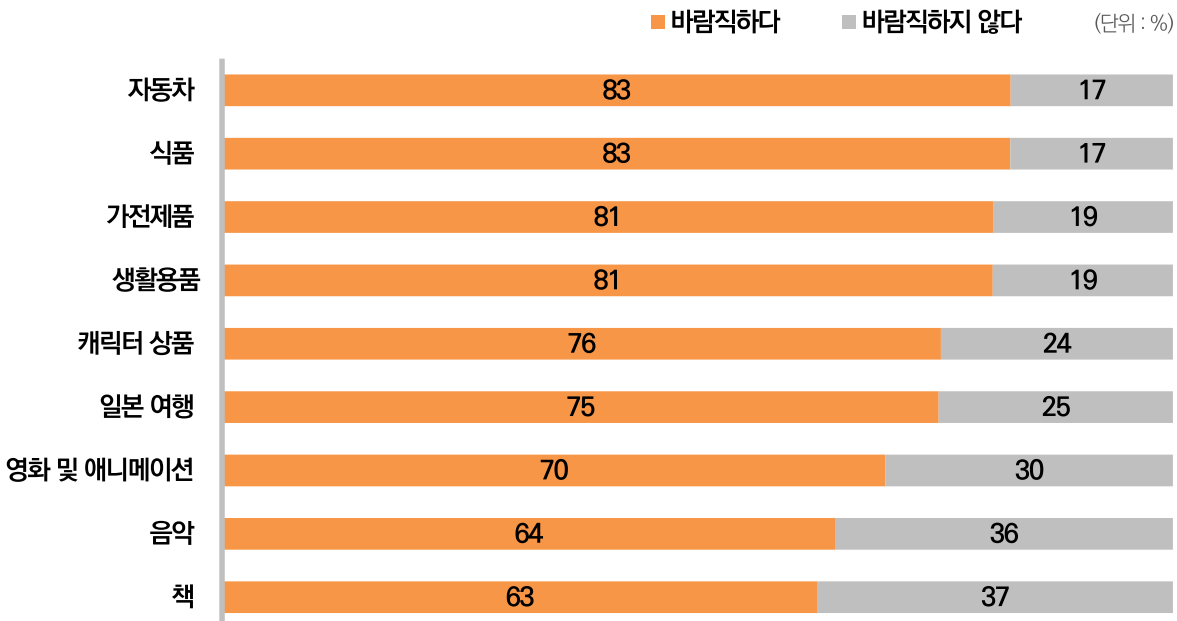
1 일본불매운동 지지

(단위 : %)



Q 귀하가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귀하의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유를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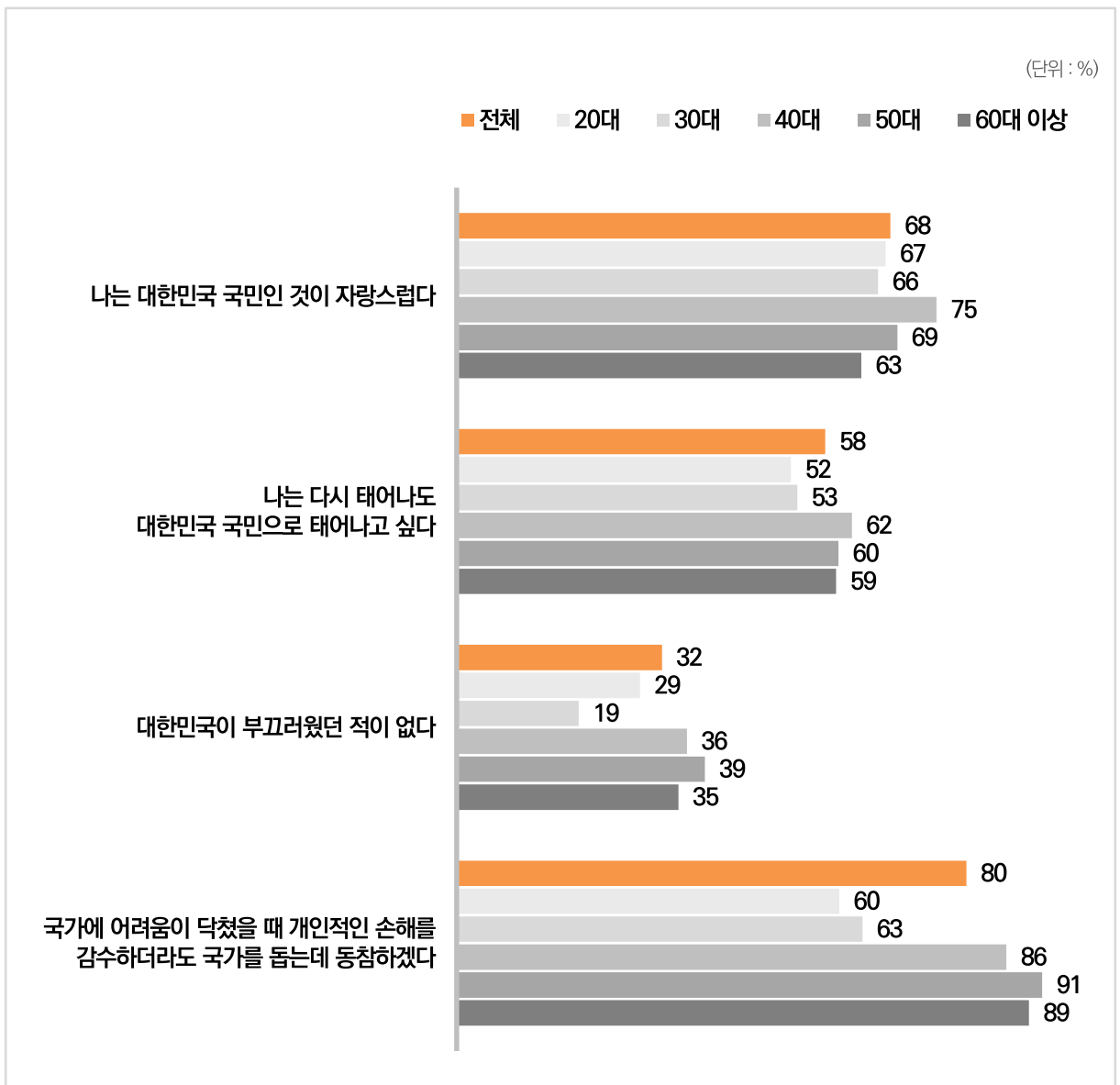


Q 귀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한 불매운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 누가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는가?

국가자부심 척도

국가자부심을 측정하기 위해 다음 4가지 항목에 대해 질문한 후, 각 항목별로 '그렇다'에 해당하는 항목의 합계를 계산하였다. 모든 항목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 시 국가자부심 척도는 4점으로 '매우 높음'에 해당하고 모든 항목에 '아니다'로 응답 시 국가자부심 척도는 0점으로 '매우 낮음'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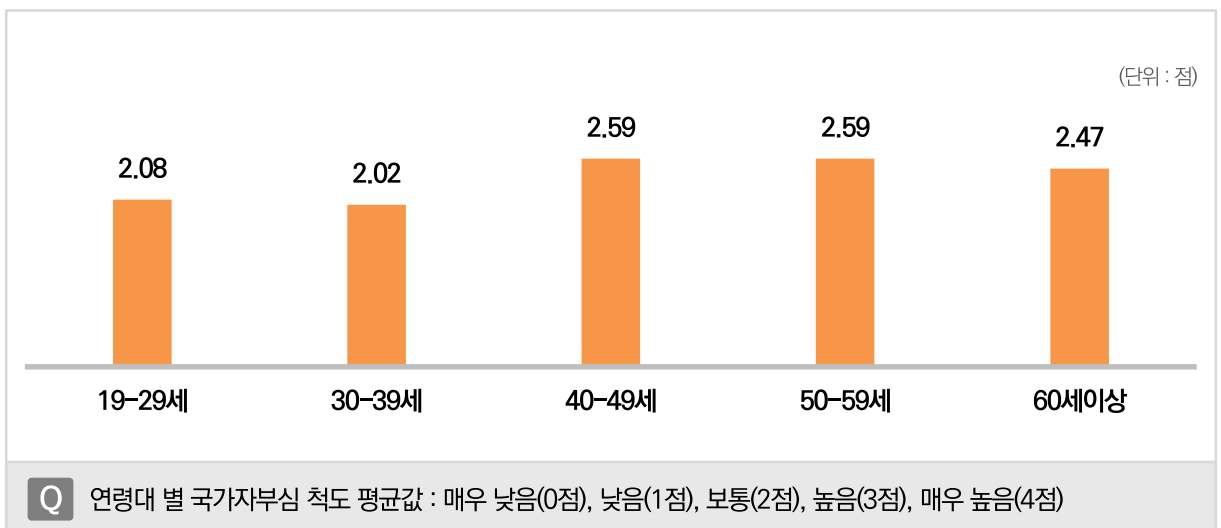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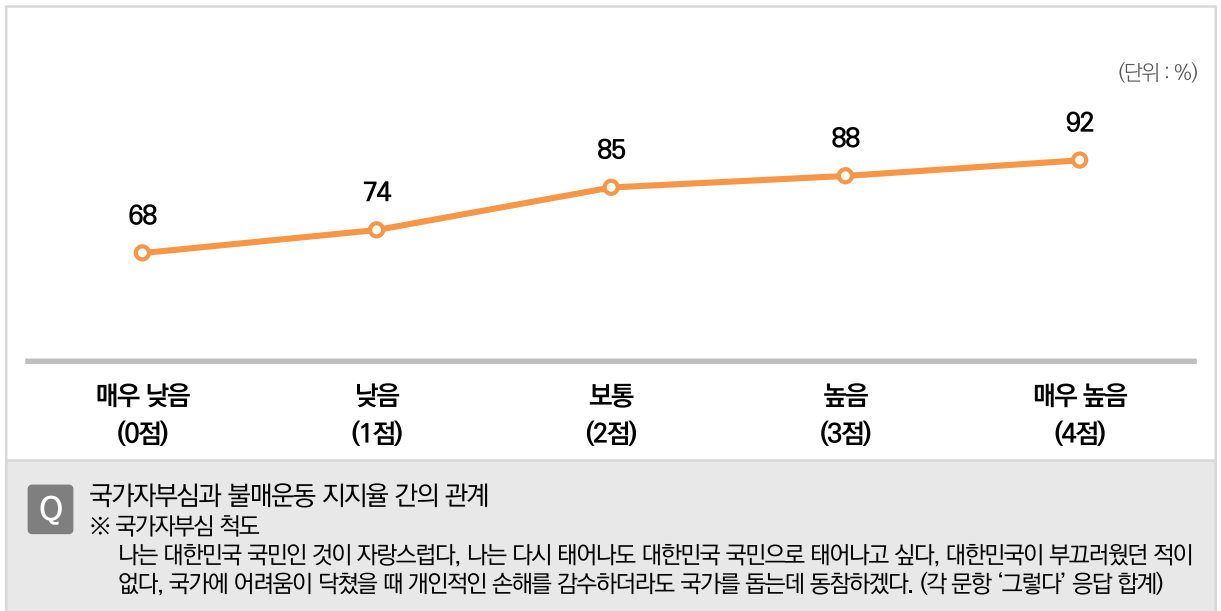


Q 다음 진술 중 귀하께서 더 공감하시는 것에 응답해주세요.

2 누가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는가?

국가자부심 높은 40·50이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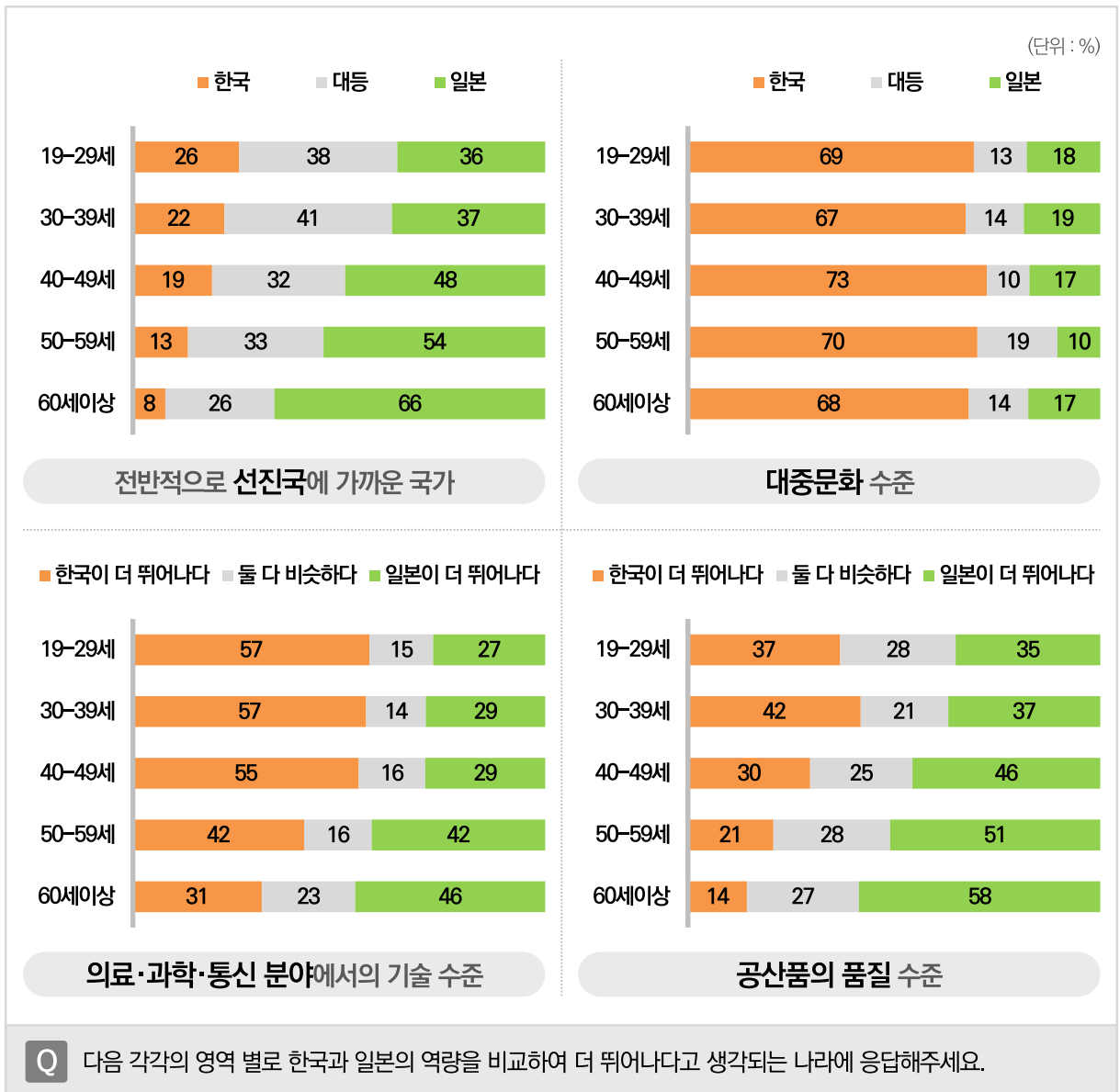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하고 참여하는데 가장 적극적인 계층은 40대와 50대로 조사되었다. 인터넷 상에서 보면 일본 불매운동을 20·30이 주도하는 것 같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50대, 40대, 30대, 20대 순으로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의견이 높았으며 60대에서 가장 낮았다. 그렇다면 왜 4050일까. 불매운동에 대한 지지는 국가자부심과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보여진다. 국가자부심이 높을수록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비율도 높는데, 국가자부심이 0점으로 매우 낮은 집단에서는 68%, 4점으로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92%가 일본 불매운동을 지지했다. 그리고 40·50은 바로 이 국가자부심이 가장 높은 세대이다.



2 누가 일본 불매운동을 주도하는가?

20·30은 우리가 일본보다 낫다는 자신감이 크게 작용

반면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국가자부심이 낮다. 그럼에도 이들이 60대 보다 일본 불매운동에 높은 지지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30은 다른 세대와 달리 한국과 일본이 대등하다는 인식이 강한 세대이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더 선진국이거나 양국이 비슷하다는 인식은 20·30에서 60%를 넘는다. 한국의 기술, 품질, 문화 수준 모두 일본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유일한 세대이기도 하다. 들끓는 국가자부심은 없지만 '품질이든 문화 수준이든 우리가 더 나은데 왜?'라는 자신감이 청년층의 일본 불매운동을 추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일본 불매운동의 불참자를 바라보는 시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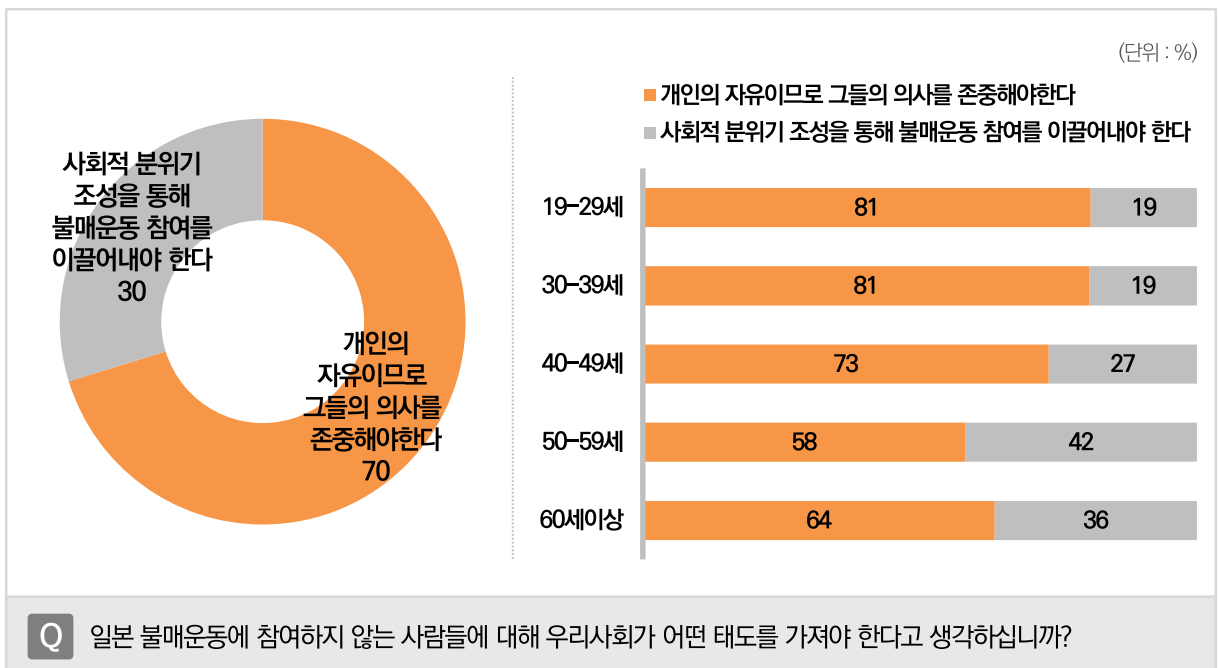
나는 참여한다, 하지만 전체주의적 선동에는 반대한다

국익보다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 여기는 20·30에서 뚜렷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도 개인의 자유, 각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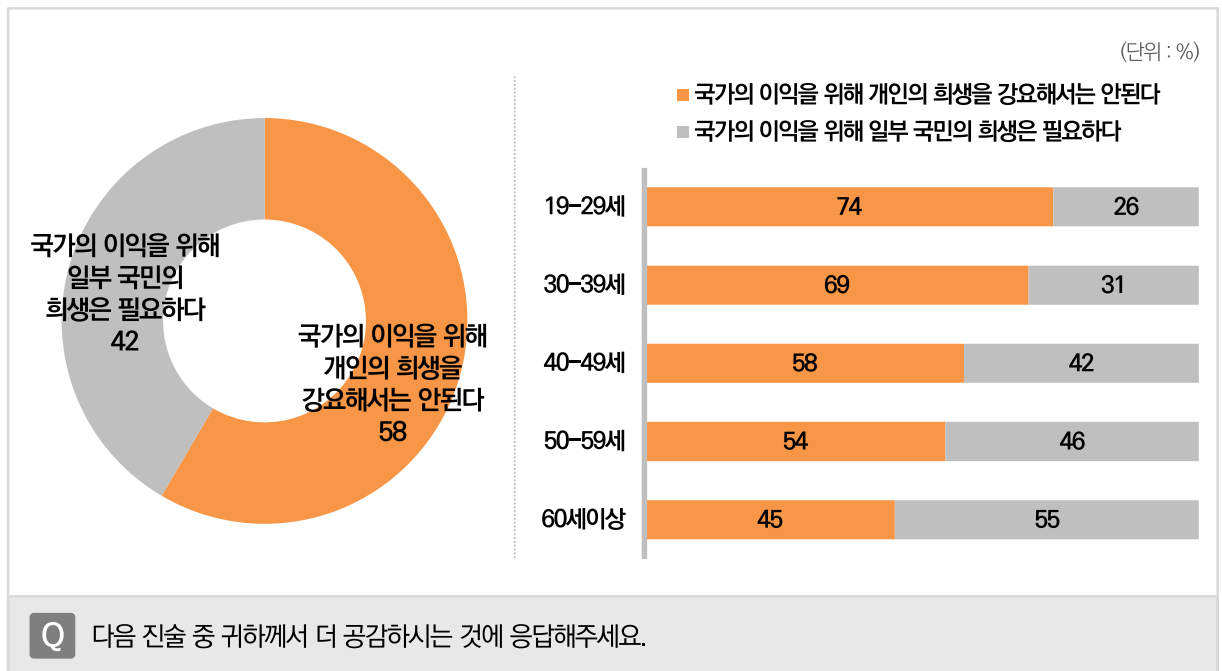
일본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매국으로 비난하고 개인의 선택을 제약하는 전체주의적 선동에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국민의 70%는 불매운동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이므로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의견은 30%다. 특히 20·30세대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81%로 높다. 불매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젊은 층에서 폭넓게 자리 잡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젊은 세대로 갈수록 국익보다는 개인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주의적 경향과 맞닿아 있다. 국익과 개인의 권리가 충돌했을 때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은 젊은 세대로 갈수록 높아 20대에서는 74%이다. 반면 60대 이상은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일부 희생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55%에 이른다. 앞서 국가 자부심 척도 중 하나인 '국가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개인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가를 돕겠다'는 항목에서도 비슷한 세대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항목에 '그렇다'는 응답은 20·30세대는 60%인 반면 60대 이상은 89%에 이른다. 단 세대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세대에서 나의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국가를 돕겠다는 생각이 다수 여론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은 놓치지 말아야 할 지점이다.



3 일본 불매운동의 불참자를 바라보는 시각

불매운동을 지지하는 여론이 대다수인 가운데 이를 추동하는 기저는 세대마다 다르다. 40·50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자부심으로 불매운동을 이끄는 가운데, 2030은 일본과 대등한 국력을 지녔다는 자신감이, 60대에서는 '개인을 희생해서라도 국가를 도와야 한다'는 집단주의적 정서가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애국주의적 동원 대신 '각자의 생각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민 인식의 변화는 지금 불매운동의 가장 돋보이는 지점이다.



여론속의
여輿論論

CHAPTE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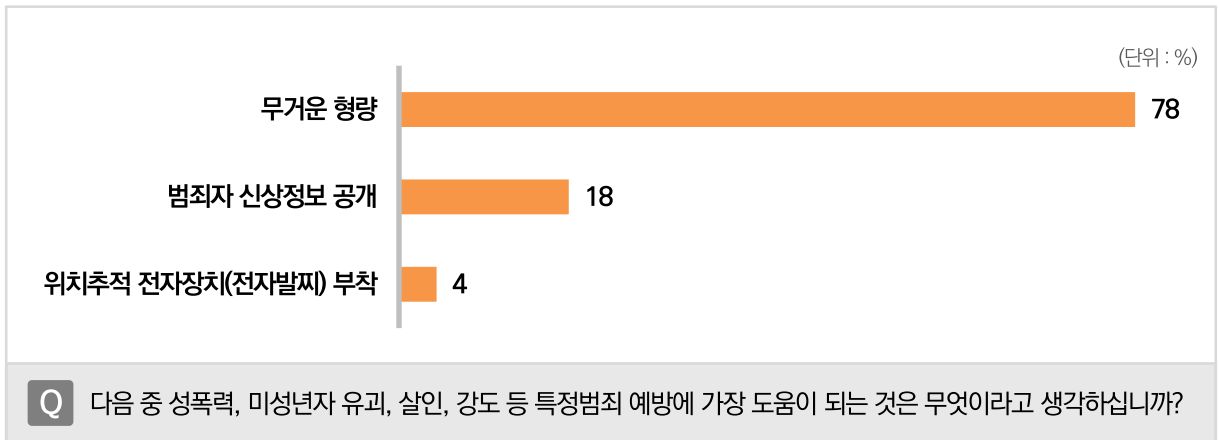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인식조사

1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에 대한 의견

특정범죄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무거운 형량, 전자발찌를 꼽은 응답은 4%에 그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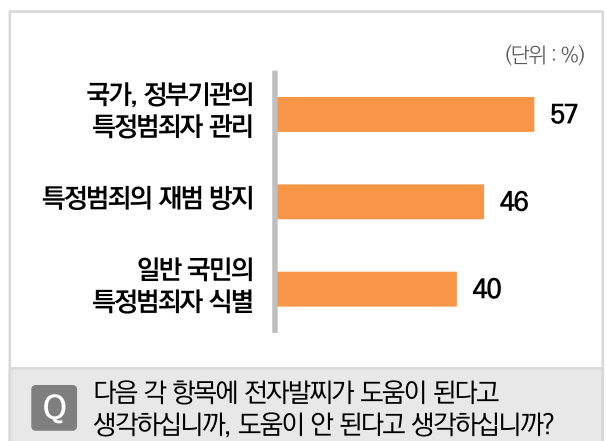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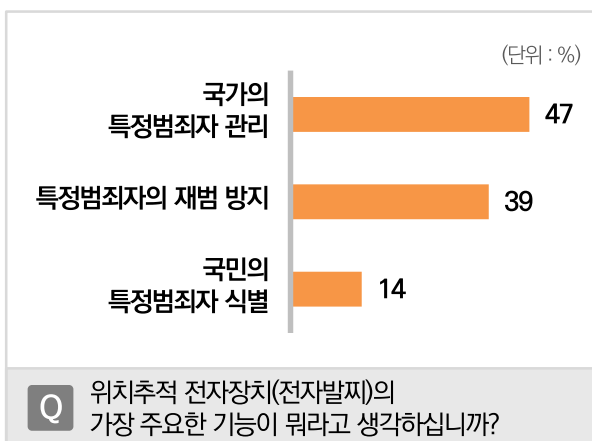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특정범죄 예방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78%가 무거운 형량을 꼽았다.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가 18%로 뒤를 이었고, 전자발찌가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은 국가의 특정범죄자 관리

국민은 전자발찌가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 기능보다는, 국가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관리하는 기능이 더 크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전자발찌의 가장 주요한 기능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가 국가의 특정범죄자 관리를 꼽아 특정범죄자 재범 방지(39%), 특정범죄자 식별(14%)보다 높았다.

전자발찌의 효용성에 대한 조사 결과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국가, 정부기관의 특정범죄자 관리에 전자발찌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57%로 과반 이상이였다. 반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6%, 일반 국민이 특정범죄자를 식별 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40%로 과반에 못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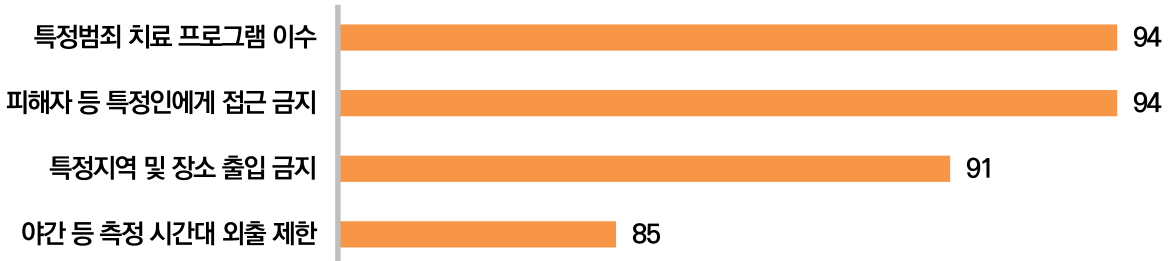
2 전자발찌 착용자 준수사항에 대한 의견

전자발찌 착용자 준수사항 명령은 적절한 조치, 준수사항 위반, 전자발찌 손상 시 강력 처벌 의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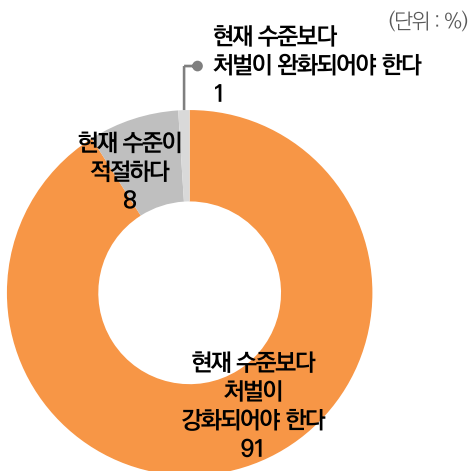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자에게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장소 접근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전자발찌 손상 시 처벌(현행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다수가 동의하였다.

“적절한 조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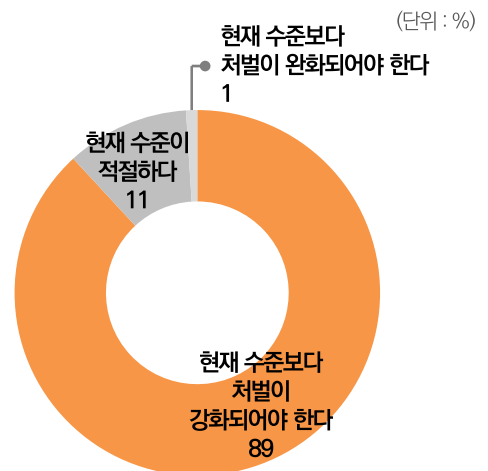
(단위 : %)



Q 법원은 전자발찌를 찬 사람에게 다음 준수사항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각 사항에 대해 어떤 입장에 가까우십니까?



Q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앞서 언급한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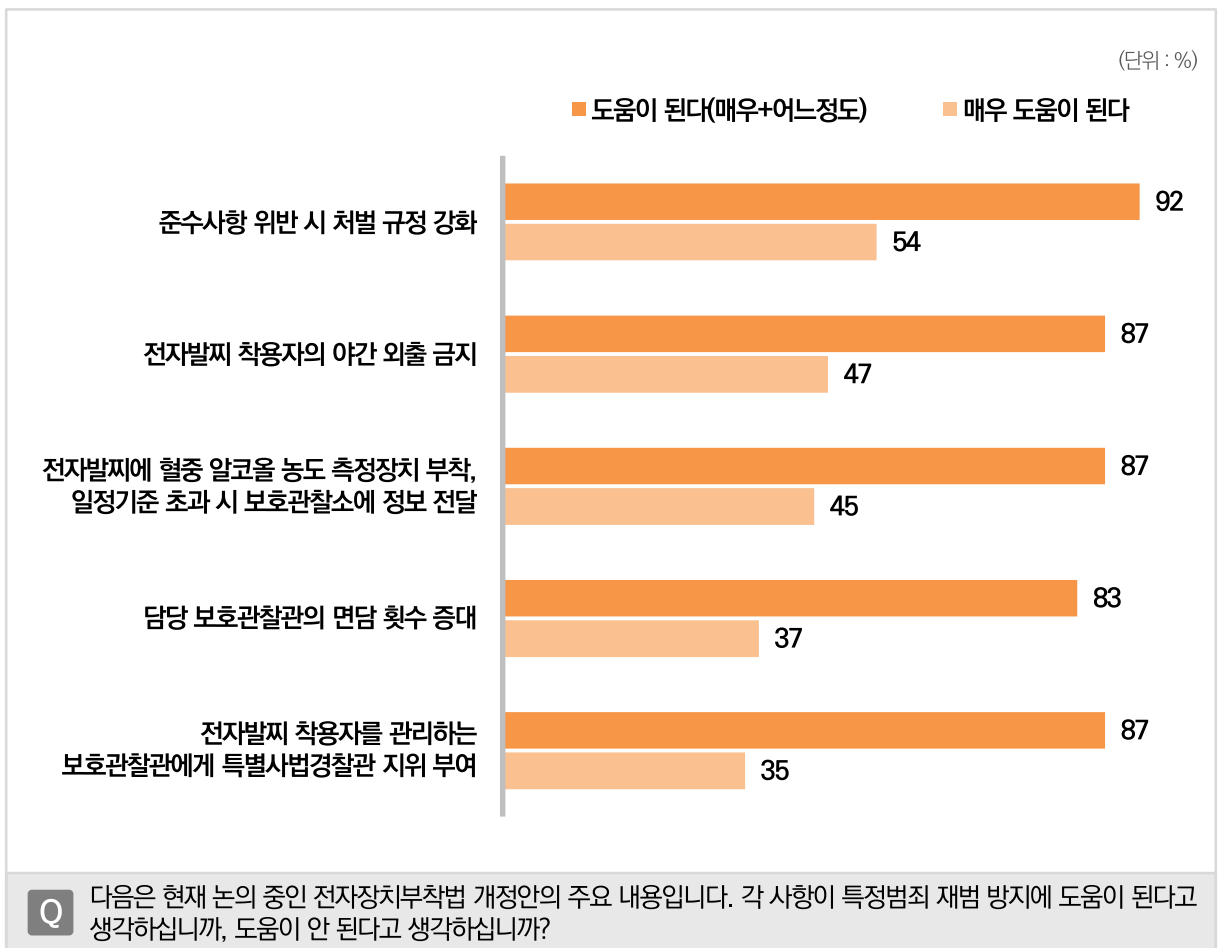


Q 전자발찌를 찬 사람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처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평가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 된다는 의견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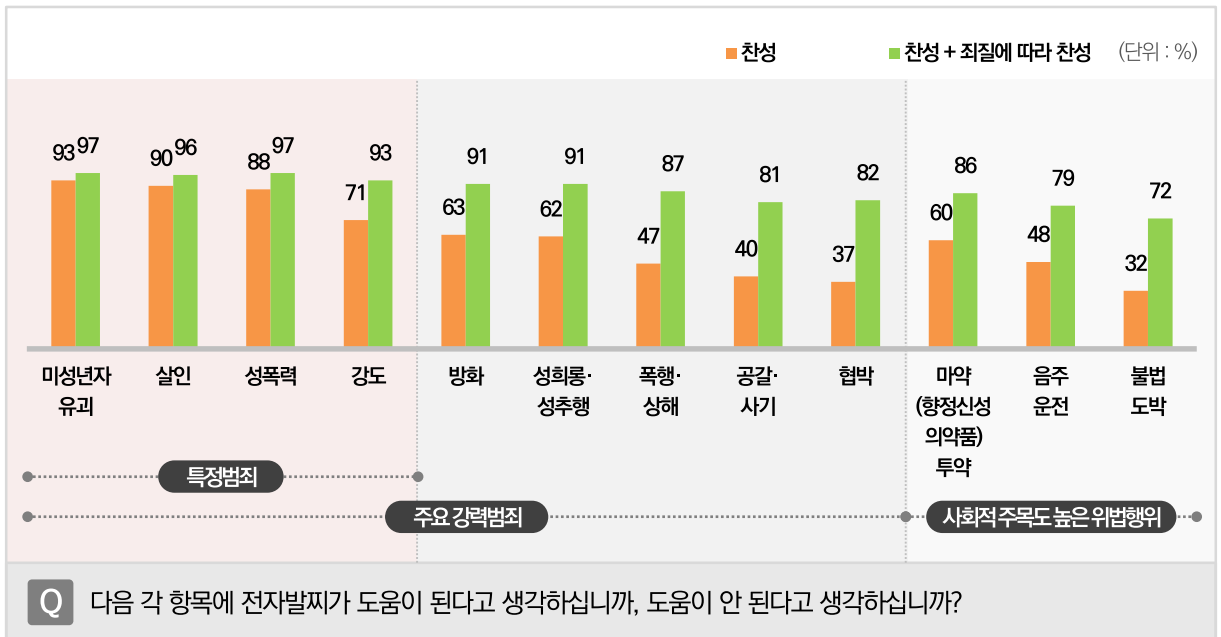
현재 논의 중인 전자장치부착법의 주요 개정안이 특정범죄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응답자 대다수가 공감하였다. 특히 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강화(매우 도움이 된다 54%), 전자발찌 착용자 야간 외출 금지(47%), 전자발찌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장치 부착 · 일정기준 초과 시 보호관찰소에 정보 전달(45%) 등 전자발찌 착용자의 행동을 직접 규제하는 개정안의 긍정 평가가 높았다.



4 주요 범죄·위법행위별 전자발찌 착용 입장

특정범죄자 전자발찌 착용에는 절대적 찬성, 기타 강력범죄 등에도 전자발찌 착용 필요 의견 높음

전자발찌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강도 등 법으로 정한 특정범죄자 중, 재범 가능성이 높거나 미성년자 대상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부착한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대상 특정범죄 외에 주요 강력범죄, 그리고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 행위(도박, 마약, 음주운전)에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을 물었다. 특정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였다. 주요 강력 범죄들도 조건부 찬성을 포함하면, 열명 중 여덟 명 이상이 전자발찌 부착에 찬성하였다. 불법 도박, 마약, 음주운전 등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0% 이상이 찬성 또는 죄질에 따라 착용을 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전자발찌 착용 확대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참여: 이소현 인턴(한국리서치 여론조사 사업1부)

조사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 전국의 만19세 이상 성인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MS 패널(2019년 7월 기준 약 45만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응답율	• 조사요청 8,004명, 조사참여 1,39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12.5%, 참여대비 71.6%)
조사일시	• 2019년 8월 23일 ~ 8월 2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40 YEARS Hankook Research

